

저탄소생활 실천 도·시군 '합심'

전북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워크숍
진단 컨설팅 등 추진

전북도는 26일, 시군과 지역 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의 41.2%를 차지하는 가정, 상가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워크숍을 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에너지 진단 컨설팅 추진방향,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방안 등 세부사업들에 대한 논의 및 공유하는 자리로, 민관이 함께 도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습관을 몸에 뽐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에너지 진단 컨설팅 사업은 가정 상가 등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도에서 설정한 목표(2,750개소)를 초과한 3,000여개소의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9만3,000세대가 가입을 완료, 2017년 가정 내 에너지절약 등으로 3만4,420톤 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4,764명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전북도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나



무주·금산·영동이 하나로

26일 충남 금산군청에서 열린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간 3도 3군 관 광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부터 저탄소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의 계기도 마련한 바 있다.

전북도는 개별 부문에 한계가 있어 아파트, 마을, 군부대 등에 소속된 주민, 장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연말에 에너지 절약 실적과 저탄소생활 실천 노력도 평가 등을 통한 표창 및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시군 업무담당자와 지역 네트워크간의 상호 협력을 위해 수

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생활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 정토진 자연생태과장은 "올해에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시군과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들도 에너지 진단 컨설팅 신청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에너지 절약 실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청년들의 아이디어, 전북의 미래 열다

제3기 청년정책포럼, 첫 워크숍 시작으로 본격 활동

제3기 청년정책포럼이 54명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별 현장의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3기 청년정책포럼을 구성하고 '소통으로 공감하고 전북의 미래를 여는 청년정책포럼'이라는 주제로 26일 첫 워크숍을 했다.

청년정책포럼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직장인, CEO, 문화예술인, 농업인, 자영업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됐다.

특히, 제2기 청년정책포럼부터 활발한 활동을 해온 위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위원들의 참여가 높았으며 전주지역 외 9개시군의 청년과 대

학생 참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청년정책포럼'의 첫 출발을 기념하고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포럼위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청년들의 고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청년위원은 "청년문제를 고민하고 우리들의 목소리가 청년정책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 생각하니 가슴이 뛰고 즐거웠다"며,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정책포럼은 다양한 청년의 의견수렴, 청년문제 발굴조사와 개선방안 모색, 새로운 정책제안 및 도정참여, 청년(청년단체)간 교류 등의 활

동을 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도와 청년 관련기관, 청년정책포럼이 함께 협업시스템을 마련하여 전북도정을 이끌어가는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라북도의 청년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더해 주면 청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라북도형 청년정책이 탄생하리라 확신한다"며 청년정책포럼 위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미투 운동 무겁게 받아들여"

문 대통령, 후보회의서 "사법당국 적극 수사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끊임 없이 쏟아져 나오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할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 접근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용기 있게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이어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해결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우선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박준배 전 새만금개발국장 김제시장 출마 공식 선언



박준배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지역 상임 부위원장(전 전북도청 새만금 개발국장·사진)이 26일, 전북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3 지방선거에 김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정의로운 김제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출마의 변을 통해 희망찬 김제 건설의 비전과 신념을 밝혔다.

그는 "청렴한 공직생활 35년간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새만금 총괄업무 등에 집중해 왔다"면서 "이 경험을 살려 새만금 국제 경험단지 330만㎡ 개발, 농특산업 6차 산업화, 순동 혁신도시 KTX역 추진, 모악산 상생 평화축제와 지평선 글로벌축제, 3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짐체 된 김제 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 불평등, 비리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시정의 정상화를 위해 공직 기장을 바로 잡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뉴시스

靑 "文대통령, 北김영철 접견 때 비핵화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공개 회담에서 비핵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과 만나 "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만났을 때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김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

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등 북한 2차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북한 대표단도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소개했지만 '비핵화 대화'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